

가정이 하나 되는 길  
우리적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

# 성불의 길은 법당에만 있지 않아... 가정법회로 신행하자

정토회

## 생활과 수행 하나로 이어져 '우리동네 열린법회' 운영... 국내외 250여 개

구랍 22일 정토회 송년법회가 열린 날, 서울 서초구 정토회 법당에 2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이날 조촐하게 문을 연 정토회의 '우리동네 열린법회(가정법회)'는 가까운 지역의 이웃과 함께 가족간의 갈등, 자녀문제, 부부, 직장

내 갈등, 우울증,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갖가지 의문들을 풀기위한 법회이다. 가정법회에서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영상법문을 들으며 자신과 이웃이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간다.

현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우리동네 열린법회'는 국내 220개, 해외 30개로 총 25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열린법회는 '날마다 웃는 집, 행복한 출근길'을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걸고, 1000만 가족 행복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 이들은 법회 뿐 아니라 봉사활동도 함께 해 수행과 봉사가 들어 있음을 입증해내고 있다.

열린법회 회원들은 최근 굿주리는 아시아 어린이 돕기 JTS캠페인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진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부가 마련된 정토회 '행복센터'는 열린법회를 총괄하며 법회를 새로 개설·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행복센터의 양윤덕 보살은 "가족·직장 문제 또는 사회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처음 열린법회를 찾은 분들이 자신을 찾아가며 행복해 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전국에 불법을 전하고,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정토회 행복센터의 목표"라고 말했다.

수지구에 거주하는 열 분의 보살들과 함께 1년정도 집에서 법회를



정토회 열린법회에 참여하는 보살들은 '내 집이 법당이 되는 것도 이렇게 쉽다'고, 체험하게 돼서 참 좋다'며 가정법회 자랑이식을 줄 모른다.

보고 있는 공덕해 보살(38·정필자)은 "용인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러 서울 법당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집에서 가정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허락했다.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차분하고 좋다가, 산문 밖을 나서면 마음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내 집이 법당이라 집에서도 경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법회를 하면서 달라진 점을 묻자, 공덕해 보살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지 잠시 뜬눈을 들이 뒤, 답변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집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죠. 그런데 법회를 보다보니 집에서도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많아졌고, 제 급한 성격도 이제는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저희 일곱 살짜리 아들은 법회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날은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거북이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끝으로 공덕해 보살은 아직 가정법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남겼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닳을 때 하고보는 거예요. 저도 일단 시작하니 여기 저기서 지원도 들어오고 도움의 손길도 있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미루면 아무 것도 못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봉사, 정진, 수행이 따로가 아니랍니다."

불광사

## 법등모임이 곧 전법운동 35년 역사의 불광법회... 공동체 정신 이어

"우리 인생의 밝은 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역시 착한 생각, 아름다운 꿈,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소망...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비록 작고 하찮아도 좋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밝게하고 기쁘게 하고 하늘 끝까지 슬며시 흔들어 준다. 우리 마음에 꽃을 심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꿀 것을 생각한다." (광덕 스님 명상 언어집)



오랜 역사를 가진 불광사 법등법회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이다. 사진은 강동구 둔촌동에서 열린 직장인 법등법회.

불광법회를 창시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다. 광덕 스님은 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법회인 법등모임을 많이 갖도록 강조했다. 불광법회는 1975년 10월 16일 종로 대각사에서 부터 시작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은 비취보전 불광법회가 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법회를 불 장소가 필요해 지금의 불광사를 짓게 된 것이다. 이제 35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불광법회는 탄탄하다.

구랍 21일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겨울 아침, 불광사를 향하는 신도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불광법회라는 바다에 가정법회(법등법회)라는 물결기를 주관하고 있는 본공 스님은 "법등이란 전법(傳法)이며, 법등모임이 곧 전법운동이다"고 말한다.

"요즘 공동체가 무너졌다고들 하잖습니까? 하지만 법등법회를 통해 다시 살아날 희망을 봐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경조사를 챙기고 돕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맑은 얼굴로 말을 이어가던 스님은 "역시 중생을 돕고 구하는 일은 의도적이기 보다 저절로 이뤄져야 한다"며 흐트레 한다. 불광사의 가정법회는 포교 활성

화, 가족간 우애, 교육의 효과도 이끈다. 스님은 "처음에 도반들이 우리 집을 찾았다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을 내니 그 후로는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도반들과 함께 법회를 보면서 신행경험담을 공유하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니 갈수록 돈독해져요. 서로 반면교사인 셈이죠."

문수월 보살은 또 "기도로 제가 변하니 가족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가 많아져 자연히 웃음꽃이 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광사 법등법회는 신앙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면서, 서로 돕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함께 수행을 하는 도반이자 선지식으로서 모두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 불자들의 모임인 법등모임, 이 법회가 집집마다 마음마다 구역마다 도시마다 부처님 법을 전파하기 위해 행복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다.

서원사

## 상담으로 불자가정 이끌어 각비 스님과 함께하는 가정법회 '인기'



가정법회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고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찾게 해주고 싶다는 서원사 신도들의 가정법회. 구랍 21일 서울 수유리의 한 가정법회에서 열렸다.

서원사의 가정법회가 열린 구랍 21일 오후 4시 반 서울 수유리 1동 한 가정집에는 서원사 각비 스님과 여섯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집으로 들어가니 벌써 집주인(안선영 보살)이 커피를 한 잔 내어 정성을 맑게 한다.

이날 가정법회는 삼귀의, 계송, 발원문 낭독에 이어 정토삼부경을 함께 공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리고 모두 둘러 앉아 차담을 나누는 시간. 오늘 처음 참석했다는 거 사님의 질문은 기뻐 줄 모른다. <무량수경>의 내용에서부터 깨달음의 문제까지. 불자들의 심오한 질문과 유머러스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당연 엄마(집주인 안선영 보살)와 딸(김미숙일 것이다. "엄마랑 함께 집에서 법회를 보

다면, 스님과 상담하는 시간에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을 알게 돼요. 엄마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한 마음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김미숙양이 가정법회의 소중함을 말하자, 엄마도 고마움을 전한다.

"저는 우리 딸 덕분에 늘 부처님께 감사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큰딸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법회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딸처럼 아들 내외도 언젠가는 돌아올거라 믿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제 바람입니다."

각비 스님은 "진정 불자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2009년 4월부터 가정법회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쉬지않고 가정법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문수선원  
시민선원

불교대학, 대학원 축서사 합창단 일동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 054)672-7579

**선아트 스페이스**  
www.sunarts.kr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Tel 02.732.0732

studio **선**문화공방  
academy **선**그림  
space **선+**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